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증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백학영** · 안서연***

요약

본 연구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과 다른 소비지출과의 관계와 소득계층에 따른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중산층과 상층가구에 비해 적을지라도,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게 나타난다. 또한 가구의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조정되는 소비 비목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즉 중산층과 상층은 사교육비 비중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다른 소비를 조정하는 반면, 빈곤층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소비 항목에 제약이 있었다. 이는 빈곤층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소비지출의 제약으로 인해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소비를 하지 못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빈곤층 가구에서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구 소비의 위축을 가져와 실질적인 경제적 안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빈곤층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출의 증가로 인한 경제적 안녕의 훼손과 불안정한 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

* 본 연구는 2010년도 강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제3회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2010. 9. 29) 발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김희삼(한국개발연구원) 박사와 한국사회정책학회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드립니다.

**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hywhite@paran.com)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doga2@hanmail.net)

1. 서론

일반적으로 교육은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하여 숙련도와 효율성 및 작업지식을 향상시키고, 업무능률을 제고시켜 경영 합리화와 생산요소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한다. 또한 교육은 경제변화에 대한 국민의 적응력을 높이고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문화적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심재희·이계열, 2005). 현대 사회에서 개인의 교육수준은 당사자와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복리수준 그리고 사회적 계층 이동성(social mobility)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의 경제성장의 성장잠재력 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복지를 실현하는 중요한 축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수적인 생산적, 창조적 인적자본을 형성하는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인 동시에 빈곤의 대물림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수단이 된다(김인희, 2010). 이에 현대 사회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혹은 지출)에도 적극적이다.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교육열과 교육수준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높으며 이는 경제개발 시기에 발전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공교육 체계와 역할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사교육 열풍과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71.7%로 초중고 학생 4명 중 3명은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초등학생의 84.6%, 중학생의 71.0%, 고등학생의 51.6%가 사교육을 받고 있어 초등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이 가장 높다(통계청, 2012). 2011년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20조 1266원으로 학생 1인당 사교육비는 월 24만원에 이르며,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월 평균 33.5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2012년 전체적인 사교육비 지출은 줄어든다고 보고되지만, 사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2007년 28.8만원, 2009년 32.3만원, 2011년 33.5만원으로 약간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사교육비 지출은 우리사회의 양극화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소득의 양극화는 교육의 격차를 점차 심화시켜 개인의 노력만으로 소득의 격차를

극복하기 점점 어려워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사교육비 지출수준 또한 높은 특징이 있다(김정원 외, 2008). 통계청(2012) 자료에 따르면 가구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율과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다. 월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 계층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지출은 44만원으로 100만원 미만 소득계층의 사교육비 지출 6만 8천원에 비해 6.5배나 더 높다.¹⁾

사교육비 지출을 둘러싼 여러 논의가 있지만, 본 연구는 사교육비 지출과 가구의 경제적 안녕과의 관련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사교육 자체의 긍정성 또는 부정성과 관계없이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크고, 사교육비 지출 증가는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는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가구의 경제적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가구의 소득이나 활용 가능한 자원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는 가구의 전체적인 소비지출 수준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특정 소비항목의 지출을 감소시켜 가구 전체의 경제적 안녕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필수재 성격의 소비항목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만 한다면 가구의 경제적 안녕 훼손 정도는 더 클 것이다. 실제 소득하위 1분위 집단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을수록 식료품비와 광열수도비 지출이 적은 특징이 보고되기도 한다(이성림, 2005). 사교육비와 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의 사교육비 지출규모(혹은 비중)와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규모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사교육비 지출이 다른 소비항목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보여주지 못한다.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를 어느 정도 지출하는 것이 적당하며 가구의 경제적 안녕상태를 훼손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지만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사교육비 지출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은 다른 소비지출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교육비 지출 변화로 인해 가구의 다른 소비지출에 어떠한 변화가

¹⁾ 소득계층별 1인당 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100만원 미만 6.8만원, 100~200만원 10.9만원, 200~300만원 17.4만원, 300~400만원 23.4만원, 400~500만원 29.0만원, 500~600만원 34.0만원, 600~700만원 39.4만원, 700만 원 이상 44.0만원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사교육비 참여율은 100만원 미만 35.3만원, 100~200만원 49.7%, 200~300만원 68.2%, 300~400만원 76.8%, 400~500만원 81.8만원, 500~600만원 83.7%, 600~700만원 86.5%, 700만 원 이상 85.3%이다.

일어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 즉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와 다른 소비 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고, 소득계층에 따른 그 관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변화로 인한 소비지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과 가구의 소비 불안정성 문제를 짚어보는데 의미가 있다.

2. 이론적 논의

1) 사교육비 지출 특성 및 사교육비 지출 영향 요인

사교육비는 공공회계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나 학생이 교육을 위해 직접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경비로써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 지출되는 비용, 학교 교육 외에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적으로 받은 교육을 위해 개인이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김홍주·한여경·김현철, 1998; 심재희·이계열, 2005).²⁾ 사교육비 개념과 범주는 연구주체와 사교육의 수요주체에 따라 달리 정의되었지만, 최근 정부주관 사교육비 실태조사를 위해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에 대한 개념과 구체적인 항목이 표준화된 바 있다(통계청, 2008). 이에 의하면 사교육비는 초·중·고 학생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학교 밖에서 받은 보충 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된다.³⁾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을 보면(통계청, 2012), 학령기가 올라갈수록 사교육 참여율은 감소하지만,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특히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한 지출이 많은 편이다. 흥미롭게도 다른 나라의 경우 성적이 낮을수록 사

2) 공공회계는 누가 어떤 돈을 부담하든지 간에 학교나 공공기관의 공공의지(정책)에 의해 지출되는 회계를 말한다. 사교육비와 달리 공교육비는 공공회계 절차를 거쳐 지출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교육비,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교육비,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비, 사회 및 민간이 교육이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김홍주 외, 1998).

3) 통계청의 사교육비에는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학습지, 인터넷 수강 등의 수강료가 포함되며, 방과 후 학교나 EBS 수능방송 교재비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한국복지패널자료는 사교육비를 학원비, 도서관 및 독서실 비용, 과외수업비, 어학연수비 등으로 제시하여 하나의 항목으로만 조사하고 있어 응답자에 따라 사교육비에 포함된 항목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교육 참여율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성적이 상위일수록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지출수준도 높게 나타난다(통계청, 2009).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는 교육 불평등, 교육 격차, 교육 차별, 교육 부적응, 삶의 질, 교육의 비효율성, 교육 소외 등에 관한 것으로 이후 교육복지 정책에서 주요하게 고려해야 할 지점이다(김인희, 2010). OECD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나 TIMSS(국제수학과과학성취도평가)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평균 성적이 최상위권이면서 학교 간 편차가 작은 국가에 속한다. 한국은 편차의 대부분이 학교 내 편차인데, 더욱 중요한 것은 학교 내와 학교 간의 편차 모두 OECD 평균의 약 1/2에 불과하다는 점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4). 반면 우리나라는 학업성취도에 대한 사교육의 영향은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경향을 보인다(김성식 외, 2007). 사교육 참여정도와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학력 형성에 학교가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고 학생들의 학교의 존재감이 크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사회양극화 현상과 관련하여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가 사회 문제화 되고 그 대책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와 교육계의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 정도는 부모의 경제력에 의해 좌우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교육의 격차와 불평등을 초래한다(윤철경, 1990).⁴⁾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대한 연구들에 의하면 가구의 소득이 사교육비 지출의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오만숙·김진희, 2011; 유경원, 2010; 이경선·김주후 2010; 김경자, 2007; 이성림, 2006, 2005, 2002; 양정호, 2005; 김현진, 2004; 이은우, 2004; 김지경, 2004; 박미희·여정성, 2000; 정영숙, 1999). 대부분의 연구들은 총 가구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이나 사교육비 지출액 자체를 종속변수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경우에도 소득의 영향력은 강력하다. 그리고 공교육이 일종의 필수재라면 사교육은 상대적으로 선택재의 성격이 강하므로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는 것은 쉽게 예측이 가능하다(김경자, 2007).

사교육비 지출은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증가한 사회적 환경과 더불어 가구 요

⁴⁾ 우리나라에서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은 학벌주의의 영향에서 찾을 수 있다(김경자, 2007). 어느 사회에서나 고학력자가 우대받는 풍토가 형성되기 마련이나 한국사회는 능력 이상으로 학력의 가치가 인정되는 상징적 학력주의 사회라 할 수 있다(김부태, 1997; 김경자, 2007에서 재인용). 우리나라에서는 학력에 따라 취업과 승진, 임금이 달라지고 그것이 나아가 그 사람이 속할 계층을 결정한다는 믿음이 보편화되어 있다. 또한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우리나라 가구는 자녀수가 적은 세대로 구성된 특징이 있고, 부모들의 자녀의 출세와 성공에 대한 기대 등이 반영되어 사교육비 지출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강지연, 2003; 강인원·전성일, 2003).

인과 자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먼저 가구 요인을 보면 가구 내 자녀수, 부모의 교육수준,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맞벌이 여부, 모의 취업 등), 부모의 경제적 지위(부모의 직업, 가구소득, 주택소유형태 등), 가족형태(핵가족, 확대가족), 거주지역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자녀 요인으로서의 자녀의 성, 학령기(초, 중, 일반계고, 전문계고), 성적 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학교특성과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김희삼, 2009), 학교의 수업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교원 관련 변수들이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교사에 대한 개별 학생의 평가 지수와 교원의 평균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액은 줄어들고, 학교 내에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 있을 때 사교육비액은 감소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가구의 여건과 사교육비 지출규모와 비중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사교육비와 다른 소비지출의 단순한 횡단적 관계가 아닌 2개년도 자료를 연결하여 사교육비 변화를 초래하는 소비 지출 요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주요하게 가구의 경제적 여건과 가구주 및 가구특성, 그리고 가구의 학령기 아동의 구성과 그 변화가 주된 영향 요인으로 예측된다.

2) 사교육비 지출과 소비지출의 변화

1982~1996년 자료를 이용한 분석(류정순·이순형, 1998)에서 분석기간 동안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수준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리고 2002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의하면(이성립, 2005), 소비지출 중 사교육비는 7.76%를 차지하였으며,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증가하였다. 가구의 활용가능한 자원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한다는 것은 가구의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 감소를 의미한다. 가구의 소비가 경제적 안녕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 그러한 맥락에서 자녀의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가구의 다른 소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구의 경제적 안녕감은 저하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안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가구는 사교육비 지출 변화를 인해 어떤 소비항목이 조정되는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성립

(2005)은 SUR(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을 통해 소득계층에 따라 사교육비 부담과 각각의 소비지출항목(사교육, 공교육, 식료품, 외식, 주거,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 보건의료, 교양오락, 교통, 통신, 잡비, 총 소비지출)과 관계를 분석하였다. 소득 1분위를 기준으로 가구의 사교육비와 다른 소비항목의 관계를 보면, 2분위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3분위는 교육비,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4분위는 교통비, 식료품비, 피복비, 광열수도비, 5분위 교통비, 잡비, 식료품비, 주거비, 가구집기비, 피복비와 부적(negative) 관계가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수준과 교통비, 식료품비, 광열수도비와 부적인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높을수록 소비항목 배분 조정 폭이 커질 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지출 항목으로 조정이 확산되었다. 결국 상위 5분위에서는 소비생활 전 분야에 걸쳐 소비수준이 저하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부담 수준에 따라 조정되는 소비지출 항목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횡단적인 관계 분석의 한계로 사교육비 지출 증가하였기 때문에 교통비, 식료품비, 광열수도비가 감소하였고, 다른 소비항목이 사교육비로 인해 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이는 이성림(2005)의 연구는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사교육비와 다른 소비항목의 관계를 보여주지만 사교육비 변화에 따른 다른 소비항목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노동패널 1~7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SUR 모형을 통해 가구의 교육비, 저축, 다른 소비지출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유경원, 2010), 교육비와 저축, 다른 소비항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대체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비가 늘어날 경우 가구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자산형성을 위한 저축은 감소하며, 다른 소비를 구조적으로 조정하는 결과를 보였다. 유경원(2010)의 연구는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교육비(공교육비+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가구의 저축과 다른 소비지출의 구조적 조정 가능성을 보여주는데 의의가 있다. 그렇지만 교육비-저축, 교육비-다른 소비지출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교육비-저축-다른 소비지출의 동시적 관계를 분석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유경원, 2010), 다른 소비지출을 교육비와 저축을 제한 총액으로 환산하여 세부 소비항목과의 관계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사교육비 지출과 다른 소비 항목에 대한 지출의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여러 소비항목 중 사교육비 지출의 변화가 다른 소비 항목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발생하는지의 여부이다. 가구 내 활용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다른 소비 항목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와 반대로 다른 소비 항목에 대한 지출 변화가 먼저 발생하고 그 뒤에 사교육비 지출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과외학습비와 재정문의 관계를 연구한 윤성인(1997)은 부모가 자녀의 과외학습비 지출을 위한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을 무리형, 내핍형, 종합형, 여력형으로 분리하였다. 과외학습비 마련방법은 생활비를 줄여서 마련하는 내핍형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자산 및 저축이용, 동산 및 부동산 처분, 취업 등의 방법을 사용하는 무리형이 많았다. 그리고 내핍형과 무리형의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종합형, 경제적 여유가 있고 과외학습비에 무리한 지출을 하지 않으므로 생계비에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여력형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과외학습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교육비 외 다른 소비항목을 줄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가계에 부채가 있고 적자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평균보다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를 교육 빈곤층으로 정의한 조호정, 김동열(2012)의 보고에 따르면, 교육 빈곤층은 교육을 제외한 의식주 등 다른 부분의 소비는 모두 평균 이하로 줄이고 있었다. 즉, 교육 빈곤층은 교육비 마련을 위해 의식주, 교통, 보건 등 대부분의 소비 지출은 줄여 평균보다 모두 낮은 수준에서 소비를 하고 있었다. 교육 빈곤층의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8.5%로 평균인 19.1%에 비해 10.4%p 높은 반면, 식료품, 의류, 주거 등에 사용하는 의식주에 대한 지출은 29.4%로 평균인 32.8%보다 3.4%p 적게 사용하였다. 또한 보건, 교통, 통신, 음식·숙박, 기타 상품 및 서비스 부분을 합한 지출도 평균보다 7.0%p 지출이 낮게 나타나 교육비 이외의 모든 소비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교육비 지출 변화가 시간적으로 우선하여 발생하고 그 이후에 다른 소비 항목에 대한 지출이 조정된다는 가정 아래에서 사교육비 지출 변화와 다른 소비항목의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가구내의 사교육비 지출 변화와 가구의 다른 소비 항목의 지출변화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며, 이에 덧붙여 이 관계가 소득계층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사교육비 지출 변화와 다른 소비지출의 변화의 관계 분석 모형에는 사교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구주 및 가구특성을 기본적인 변수로 투입하였다. 가구주 및 가구의 기본적인 특성으로 가구주의 연령과 학력, 가구의 주택소유 형태, 거주

지역 특성을 투입하였으며, 가구내의 부와 모의 경제활동 상태 또한 분석에 투입하였다. 그리고 가구의 소비지출 수준과 사교육비 지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가구의 구성 특성, 즉 성인 가구원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투입하였으며, 소비지출과 사교육비의 변화가 가구의 구성적 특성 변화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기에 성인 가구원 수의 변화와 학령기별 자녀수의 변화 또한 모형에 투입하였다. 또한 가구의 소비는 가구의 소비 능력(자원)에 큰 영향을 받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 주요한 관심 변수인 소득계층변수(저소득층, 중산층, 상층)와 가구의 소비지출의 변화와 관련이 깊은 소득 변화 변수를 분석에 투입하였다. 또한 생애소득가설에 따르면 가구의 소비는 현재의 소득뿐만 아니라 가구의 과거소득(특히 자산)과 미래소득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본 연구는 가구의 실질적인 예산제약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제외한 소비지출의 변화를 모형에 투입하였다. 특히 가구의 예산제약의 강도는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t 년도와 $t+1$ 년도의 사교육비가 지출비중의 변화는 t 년도의 사교육비 지출 금액 수준에 민감하다. 이에 연구 모형에는 t 년도의 사교육비 지출 금액을 통제하였다.

3.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3,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의 각 소비지출 항목의 변화와 사교육비 지출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한국복지패널은 국내 가구단위 패널로서는 표본 규모가 가장 큰 표본(7,027 가구 및 동 가구에 포함된 15세 이상 가구원)을 1차 웨이브에서 구축하였고 5차 웨이브까지 표본 유지율이 80.3%로 가구단위 패널로서는 가장 높은 표본 유지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표본 배분에 있어서 복지 욕구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저소득층을 과대 표집한 자료로서 소득 계층별 분석에 보다 적합한 자료라 할 수 있다(강신욱 외, 2010). 한국복지패널에서 2차까지의 생활비 조사

항목은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사적이전비 보건의료비 식료품비 등 5개 항목을 위주로 총생활비만을 조사하였지만 3차 조사부터 식료품비(2개 항목), 주거비(2개 항목),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2개 항목), 교육비(2개 항목),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사적이전(4개 항목), 세금, 사회보장부담금. 그리고 총생활비로 이뤄져, 이전 자료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소비항목 금액변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적절한 자료로 간주되어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조사는 가구의 소비지출 항목을 식료품비(가정식비, 외식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피복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육비(공교육비, 사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사적이전, 세금과 사회보장세 등으로 조사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금과 사회보장세, 사적이전 금액은 가구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소비항목의 성격이 강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금과 사회보장세, 사적이전 금액을 제외한 소비항목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가구 내의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 일단 3차년도와 4차년도 조사가구 중 대학교 재학 이하의 가구원이 존재하는 가구(2507가구의 4385명의 대학생 이하 가구원)를 대상으로 하였다.⁵⁾⁶⁾ 2507가구는 빈곤가구 582, 중산층 가구 1022, 상층가구 903가구로 이뤄졌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3,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활용 가능한 가중치는 3차년도 가구가 중치와 4차년도 가구가중치가 있는데, 본 연구는 3,4차년에 정보가 모두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이기에 최근의 가중치 즉, 4차년도 가구가중치를 적용하였다.

5) 한국복지패널자료에서 사교육비 지출은 만18세 이상의 대학생 재학 자녀에게도 해당하는 지출로, 이에 대학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가구까지 분석에 포함시켰다.

6) 한국복지패널 3, 4차년도 자료는 2007년과 2008년이 자료로. 분석 자료의 시기적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2007년과 2008년에는 사회경제적 여건에 큰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먼저 경제활동참여와 고용여건을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7년 61.8%, 2008년 61.5%로 다소 감소하였으며, 고용율 또한 59.8%에서 59.5%로 다소 감소한다. 그렇지만 고용관련 지표에서 실질적인 큰 변화는 2009년에 발생한 하여, 2009년 경제활동 참가율은 60.8%, 고용율은 58.6%로 미국발 금융위기의 실질적인 영향은 2009년에 주요하게 포착되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가구(2인 이상 가구)의 경상소득 2007년 306만원에서 2008년 325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가구(2인 이상 가구)의 소비지출 또한 202만원에서 211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된다. 다만 1인당 국민소득은 환율 변화의 영향을 21631달러에서 19161달러로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2007년 소비자 물가지수(100)를 기준으로 할 때 2008년 소비자 물가지수는 104.6으로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통계청 KOSIS).

먼저 가구 내의 사교육비 지출현황에 관해서 부모학력별, 계층별로 알아보고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 가구와 감소한 가구들의 생활비 지출항목의 변화를 빈도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다음 사교육비의 증가 혹은 감소가 가구내의 소비지출 항목 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소득계층별로 생활비 지출항목에 어떤 영향을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사교육비 지출비중 변화와 다른 소비항목 변화 분석에 앞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변화 영향요인 확인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 변화가 개별 소비항목의 지출 변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SUR)⁷⁾ 분석을 하였다.

SUR은 오차항들이 사실상 관련되어 있는 몇 개의 개별적인 관계들을 결합시키는 회귀분석으로, 개별 회귀식의 오차항을 상호 독립적인 것으로 처리하는 OLS와 달리 같은 시점에서 오차항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는 통계적 방법론이다(Moon & Perron, 2006; Zellner 1962; Srivastava & Giles, 1987). 예를 들어 가구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와 사교육비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구의 예산제약선 상에서 서로 경쟁적인 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관련성을 동시적 상관관계(contemporaneous correlation)라 부르고 이 부분을 고려한 추정방법이 SUR이다. SUR 모형에서는 n 개의 회귀모형의 오차항($\epsilon_1, \epsilon_2, \dots, \epsilon_n$) 사이의 동시적 상관관계를 가정하고 개별 모형을 하나의 모형으로 통합한 분석모형을 만든다. 이 때 회귀계수 추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적절한 추정방법은 일반화 최소제곱(Generalized Least Square, GLS)방법이다. 이는 오차항의 분산-공분산 행렬 상황에서의 추정 방법으로, 2단계 추정법이 이용된다. 즉, 첫 번째 단계에서는 오차항의 분산항을 추정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첫 번째 단계에서 추정된 분산항을 이용하여 최소 제곱 방법으로 회귀계수를 추정하게 된다(Moon & Perron, 2006). 본 연구의 종속 변수 개별 소비지출 항목은 총 소비지출의 하위 구성부분을 이루기 때문에 각 비목의 회귀방정식을 독립적인 회귀식보다 상호 연관된 여러 개의 종속변수들의 함수체계로 구성한 다변량회귀모형(Multivariate Regression Model), 즉 SUR 분석이 적합하다(이성림, 2005). SUR은 서로 다른 회귀방정식들의 정보를 결합함으로써 효율적인 회귀계수 추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Moon & Perron, 2006). 이에 본 연구는 사교육비 지출 비중 변화가 각 소비항목 지출비중 변화 영향분석에서 SUR 분석을 하였으며, 분석은

⁷⁾ SUR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Moon과 Perron(2006)을 참조하라.

전체집단을 대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각각의 소비항목 지출에 주는 요인을 분석한 후 소득집단별 영향 요인 차이를 확인하였다.

2) 변수의 정의 및 측정

[표 1] 변수의 정의 및 측정

구 분	변수명		변수값
중속 변수	사교육비 변화 (OLS)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사교육비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point)
	개별 소비항목 지출 변화 (SUR)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개별 소비항목이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point):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
독립 변수 및 통제 변수	사교육비	사교육비 변화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사교육비가 전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 point)
		사교육비 지출 규모	3차년도 로그 사교육비지출금액
	가구 특성	가구주 연령	3차년도 가구주 연령(연속변수)
		가구주 학력	3차년도 가구주 학력수준, 고졸미만, 고졸, 고졸이상(기준: 고졸미만)
		부모의 경제활동	3차년도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 맞벌이, 비맞벌이(기준: 비맞벌이)
		주택 소유형태	3차년도 자가, 전세, 월세(기준: 자가)
		거주 지역	3차년도 서울, 서울 외 지역(기준: 서울)
		가구 내 성인 수	3차년도 성인 가구원 수(연속변수)
		가구 내 성인 수 변화	3차년도와 4차년도의 성인 가구원 수 변화(연속변수)
		미취학 아동 수	3차년도 가구 내 만6세 미만 아동 수(연속변수)
		미취학 아동 수 변화	3차년도와 4차년도의 가구 내 만6세 미만 아동 수 변화(연속변수)
		초등학생 수	3차년도 가구 내 초등학생 수(연속변수)
		초등학생 수 변화	3차년도와 4차년도의 가구 내 초등학생 수 변화(연속변수)
		중학생 수	3차년도 가구 내 중학생 수(연속변수)
		중학생 수 변화	3차년도와 4차년도의 가구 내 중학생 수 변화(연속변수)
		고등학생 수	3차년도 가구 내 고등학생 수(연속변수)
		고등학생 수 변화	3차년도와 4차년도의 가구 내 고등학생 수 변화(연속변수)
	경제적 특성	소득 변화 금액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가구 소득변화 금액 (물가상승률 반영, 표준화 점수)
		예산제약 변화 금액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가구 내 총 생활비 중 사교육비를 제외한 변화금액(물가상승률 반영, 표준화 점수)
		소득계층	3차년도 소득계층, 빈곤층, 중산층, 상층(기준: 빈곤층)

종속변수 및 독립변수의 정의 및 측정은 위의 [표 1]에 정리하였다.⁸⁾ 각 분석 모형 별 종속변수(또는 독립변수)로 투입되는 개별 소비항목의 비중 변화는 t년도와 t+1년도의 전체 소비지출에서 개별 소비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 point)로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소득계층은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소득이 마이너스인 가구는 0으로 코딩 변경한 후, 소득계층은 가구균등화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의 50% 미만을 빈곤층으로, 50% 이상 150% 미만을 중산층으로, 150%이상을 상층으로 분류하였으며 기준범주는 빈곤층이다. 그리고 가구의 소득 변화금액(월)과 예산제약 변화금액(월) 계산에서 t년도와 t+1년도 사이의 소비자 물가상승률 4.7%를 적용한 후 변화금액을 산출하였으며,⁹⁾ 변화가 큰 일부 사례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 표준화 점수(z-score)를 투입하였다.

3) 자료의 일반적 특성

[표 2]는 본 연구에 활용된 자료의 기본적인 특성을 보여준다.¹⁰⁾ 가구주의 학력수준을 계층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전체 집단의 학력 수준은 고졸미만이 23.21%, 고등학교 졸업이 40.77% 그리고 대입 이상이 36.02%였다. 빈곤층의 경우 고졸 미만의 학력을 가진 부모가 46.89%, 고등학교 졸업은 34.71%, 대입 이상은 18.40%였으며, 중산층의 경우 고졸 미만이 21.01%, 고등학교 졸업이 47.21% 그리고 대입 이상은 31.78%이다. 상층의 경우 고졸미만은 4.10%에 불과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은 29.98% 그리고 대입 이상이 65.92%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구주의 학력을 기준으로 볼 때 소득계층별 학력은 큰 차이를 보였다.

⁸⁾ 사교육비지출수준 변수는 3차년도 사교육비 수준은 로그를 취한 값(로그사교육비지출금액)을 투입하였으며, 사교육비가 없는 가구는 사교육비는 “0”을 “1”의 값으로 대체한 후 로그를 취하였다. 그리고 한국복지패널 자료에서 사교육비는 가구 구성원 전체가 지출한 총 사교육비로 측정되어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는 가구 주 부부의 경제활동상태로 측정하였다.

⁹⁾ 2008년 전년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4.7%(KOSIS)를 반영한 금액으로 2007년을 100으로 2008년 소득금액을 95.51%로 조정하였다.

¹⁰⁾ 본 연구의 분석에서 변수에 따라 무응답 사례가 달라 총 사례 수의 합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를 보다 간결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분석 결과표에 사례 수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다.

[표 2] 자료의 일반적 특성(3차년도 자료)

(단위: %, 명, 만원)

		전 체	빈곤층	중산층	상 층
가구주 학력	고졸 미만	23.21	46.89	21.01	4.10
	고졸	40.77	34.71	47.21	29.98
	대입 이상	36.02	18.40	31.78	65.92
	계	100	100	100	100
가구주 연령	30대 이하	34.10	23.53	36.98	31.70
	40대	42.20	44.66	40.88	43.86
	50대	17.50	13.56	15.67	21.75
	60대 이상	6.10	18.25	6.46	2.69
	계	100	100	100	100
주택 소유형태	자가	54.86	40.56	50.05	66.25
	전세	21.06	21.09	21.59	20.18
	월세 및 기타	24.08	38.36	28.37	13.57
	계	100	100	100	100
거주 지역	서울	20.42	17.17	18.97	23.62
	서울 외 지역	79.58	82.83	81.03	76.38
	계	100	100	100	100
부모의 경제활동상태(맞벌이비율)		42.57	22.88	38.68	53.30
가구원 수(평균)		3.85	3.52	3.90	3.84
성인가구원 수(평균)		2.11	1.81	2.11	2.17
전체 아동 수(평균)		1.74	1.71	1.79	1.67
미취학 아동 수(평균)		0.43	0.33	0.48	0.37
초등학생 수(평균)		0.51	0.65	0.53	0.42
중학생 수(평균)		0.25	0.30	0.24	0.26
고등학생 수(평균)		0.24	0.24	0.25	0.21
대학생 수(평균)		0.31	0.19	0.28	0.40
소득 변화 금액(평균)		2.56	73.71 ¹¹⁾	16.40	-38.06 ¹²⁾
예산제약 변화 금액(평균)		-11.13	1.80	-0.68	-31.68 ¹³⁾

가구주의 연령대는 빈곤층의 경우 30대 이하의 비율이 낮고, 60대 이상의 비율이 18.25%로서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상층의 경우 60대 이상의

11) 월평균 소득변화금액이 500만 원 이상 증가한 15가구의 영향으로 평균적인 소득 변화금액이 증가폭이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

12) 월평균 소득변화금액이 500만 원 이상 감소한 14가구의 영향으로 소득 변화금액 감소폭이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

13) 예산제약 금액이 월 500만 원 이상 감소한 11가구의 영향으로 예산제약 변화금액 감소폭이 큰 점을 고려해야 한다.

가구주의 비율이 2.69%로 매우 작았으며, 40대까지의 가구주 비율이 75.56%로 높은 편이었다. 주택 소유 형태의 경우 자가인 경우가 상층이 66.25%, 중산층이 50.05%, 그리고 빈곤층이 40.56%로 나타났으며, 월세 및 기타의 경우 빈곤층의 38.36%, 중산층의 28.37% 그리고 상층의 13.57%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의 경우 빈곤층은 서울 외 지역의 거주하는 비율이 82.83%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에 거주하는 비율은 17.17%인데 반해, 상층의 경우 23.62%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가구원 수는 전체 가구의 평균 3.85명이며 빈곤가구의 경우 3.52명 중산층은 3.90명 그리고 상층은 3.84명으로 대략 4명의 수준이었다.

가구 내 대학생 이하의 학생 수는 빈곤층 1.71명, 중산층 1.79명 그리고 상층은 1.67명이었다. 미취학 아동 수는 중산층에 0.48명으로 다른 계층에 비해서 높았고, 빈곤층 가구의 초등학생 수와 중학생 수, 그리고 고등학생 수가 각각 0.65명, 0.30명, 0.24명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서 비율이 높았다. 하지만 대학생 수의 경우 빈곤층이 0.19명, 중산층 0.28명 그리고 상층의 경우 0.40명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가구의 대학생 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상승률은 반영한 후 소득변화 금액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에서 평균 73.7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은 16.40만원, 그리고 상층의 경우 38.06만원이 감소하였다. 예산제약 변화 금액의 경우 저소득층이 1.80만원 증가하였으며 중산층은 0.68만원 감소한 반면, 상층은 31.68만원 감소해 다른 계층에 비해서 감소의 금액과 폭이 컸다. 하지만 소득 변화 금액과 예산제약 변화 금액의 경우 급격하게 소득과 생활비 지출이 증가하거나, 감소한 몇몇 가구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을 감안해서 해석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4. 분석결과

1)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현황

[표 3]은 가구 내 대학생 이하 학생 수와 상관없이 소득계층별 사교육 유무만을 살펴본 것이다. 상층 가구의 72%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중산층의 경우 64.62% 그리고 빈곤

층의 경우 52.40%의 가구만이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소득별 사교육 유무(3차년도 자료)

(단위: %)

	사교육비 지출 있는 가구	사교육비 지출 없는 가구	전 체
빈곤층	52.40	47.60	100
중산층	64.62	35.58	100
상층	72.00	28.00	100
전체 평균	66.18	33.82	100

[표 4]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수준(3차년도 자료)

(단위: 만원, %)

구 분	대학생 이하 학생 수	사교육비 지출금액	총 생활비 중 사교육비 비중	
빈곤층	1명	6.75	11.95	4.20
	2명	16.55		7.98
	3명	13.54		6.07
	4명(9가구)	15.08		8.79
중산층	1명	9.15	20.30	3.48
	2명	25.80		8.58
	3명	29.47		8.85
	4명(13가구)	24.11		6.14
	5명(2가구)	11.06		5.07
상층	1명	17.21	42.29	3.62
	2명	60.45		11.13
	3명	53.76		9.46
	4명(4가구)	77.79		15.60
전체 평균	1명	11.92	27.20	3.60
	2명	37.16		9.40
	3명	34.12		8.76
	4명	32.53		8.57
	5명(2가구)	11.06		5.07

* 30가구 미만인 표본 사이즈에 한해서 표시함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수준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4]와 같다. 전체 집단의 대학생 이하 학생 수가 1명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금액은 평균 11.92만원으로 총 생활비

중 3.60%를 차지하고 있으며, 2명인 가구는 평균 37.16만원으로 총 생활비의 9.40%를 차지한다. 소득계층별로 보면 빈곤층의 경우 1명일 경우, 6.75만원으로 생활비의 4.20%를, 2명일 경우 16.55만원으로 생활비의 7.98%를 차지하고 있다. 중산층의 경우 1명의 대학생 이하 학생이 있는 가구에서는 9.15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생활비의 3.48%를 차지하며 2명인 가구에서는 25.80만원으로 생활비의 8.58%이다. 상층의 경우 1명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17.21만원이며 생활비의 3.62%를, 그리고 2명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60.45만원으로 생활비의 11.13%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 이하 학생이 1명인 가구의 경우 상층의 사교육비 지출금액이 빈곤층의 약 2.5배 많이 지출하였으며 2명이 있는 가구와는 3.6배 가까이 차이가 나서 소득계층별 교육에 대한 투자 격차가 큰 특징을 보였다.

2)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및 사교육비 변화

소득계층별 생활비 지출금액¹⁴⁾ 및 비중은 아래의 [표 5]와 같다. 먼저 사교육비 지출의 경우 전체 가구의 생활비의 7.11%를 사교육비로 지출하였으며 이 비율은 빈곤층 6.17%, 중산층 6.78%, 그리고 상층 7.93%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3차 대비 4차의 사교육비 지출비중은 빈곤층은 0.56%p 감소하였으며, 상층은 이보다 적은 0.6%p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중산층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0.3%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차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볼 때, 식료품비의 경우 전체 가구의 평균은 22.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로는 빈곤층이 총 생활비의 29.37%를 식료품비로 지출하여 가장 높은 비율로 지출하였으며 상층이 18.43%로 가장 낮았다(이하 모든 해석 3차년도 자료 기준). 주거비, 광열수도비, 공교육비의 경우 다른 소득집단에 비해서 빈곤층의 지출 비율이 높았으며, 가구가사용품비와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등은 소득계층별 지출 비중이 비슷하였다. 그러나 교양오락비의 경우는 상층의 지출 비율이 21.82만원으로 생활비의 3.87%를 차지하지만 빈곤층의 경우 월평균 2.80만원으로 생활비의 1.46%를 차지하는데 그쳤다. 교통통신비의 경우는 지출비중은 12.67%에서 13.17%로 큰 차이를 보

¹⁴⁾ 4차년도 각 소비항목별 지출금액은 3,4차년도 사이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이다.

이지 않지만 금액으로 비교하면 빈곤층의 경우 22.61만원이지만 상층은 71.62만원으로 빈곤층이 지출하는 금액의 대략 3.2배 더 많았다. 기타소비지출은 빈곤층이 14.60% 중산층이 16.90% 그리고 상층이 16.11%로 비슷한 소비 비중을 보였다.

[표 5] 소득계층별 생활비 지출금액 및 비중

(단위: 만원, %)

항 목	전 체				빈곤층				중산층				상 층			
	3차년도		4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사교육	27.20	7.11	27.0	7.08	11.96	6.17	12.20	5.61	20.30	6.78	20.68	6.81	42.30	7.93	41.07	7.89
식료품	74.07	22.76	72.6	22.92	46.07	29.37	50.04	30.02	66.91	24.42	66.58	24.24	92.59	18.43	88.05	18.88
주거	10.45	3.29	10.3	3.31	8.53	5.23	7.80	4.88	9.58	3.62	10.12	3.68	12.35	2.30	11.17	2.29
광열수도	13.39	4.37	12.9	4.38	11.10	7.39	10.72	6.89	12.69	4.77	12.37	4.70	15.11	3.01	14.40	3.20
가구 가사용품	11.24	3.24	11.4	3.45	5.60	3.09	6.06	3.36	9.57	3.39	10.65	3.74	15.34	3.00	13.90	2.94
의류신발	10.43	2.77	10.6	2.92	3.84	2.27	4.90	2.76	7.38	2.56	7.95	2.71	17.06	3.27	16.26	3.30
보건의료	12.16	3.32	12.2	3.47	6.51	3.86	6.37	3.95	9.65	3.33	10.56	3.57	17.67	3.19	16.32	3.19
공교육	20.91	5.87	19.0	5.43	13.42	7.35	11.55	6.17	18.07	6.20	17.13	5.75	27.40	4.97	23.99	4.71
교양오락	11.88	2.80	11.8	2.88	2.80	1.46	4.25	2.24	7.21	2.35	7.56	2.43	21.82	3.87	20.73	3.83
교통통신	51.16	13.87	50.1	13.77	22.61	12.67	23.51	12.58	42.92	14.45	42.45	14.20	71.62	13.17	69.08	13.31
기타소비	60.44	16.45	62.5	17.54	26.49	14.60	29.33	15.73	49.69	16.90	51.99	17.78	86.35	16.11	87.79	17.57

* 전체 평균 셀의 금액의 경우, 전체 가구가 각각의 소비항목에 대해 지출하는 금액의 평균을 의미하고, 비율의 경우에도 전체 가구가 개별 소비항목에 지출하는 비중(%)의 평균을 의미함.

정리해보면 전체적으로 가구의 소비지출 중에서 식료품비, 기타소비지출, 교통통신비, 사교육비, 공교육비가 순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빈곤층의 경우는 공교육비 지출 비중보다는 광열수도비 지출 비중이 더 높은 특징을 보였다. 그리고 가구 소비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차이가 있지만 모든 소득계층에서 네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항목이었다.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상태에서 3,4차년도 사이에 사교육비 지출금액은 빈곤층과 중산층에서 미미한 수준이긴 하지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상층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빈곤층과 상층은 감소한 반면 중산층은 미미하게 증가하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사교육비 비중이 준 빈곤층과 상층에서, 빈곤층은 식료

품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기타소비지출 비중이, 상층은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의류신발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이 증가하였다. 반면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한 중산층의 경우,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공교육비, 교통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표 6]은 소득계층별 3차년도와 4차년도 사이의 사교육비가 가구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빈곤층 중에서는 사교육비 비중 변화가 없는 비율을 36.95%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가구 중 25.55%를 차지하였으며, 이들은 모두 3차년도에 사교육비 지출이 없었던 가구이다. 또한 전체가구에서 37.73%의 가구가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36.71%의 가구가 사교육비 비중이 감소하였다. 그리고 빈곤층 중 31.23%는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31.82%는 사교육비 비중이 감소하였다. 중산층의 경우에는 사교육비가 감소한 가구가 35.5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증가한 가구 34.94%, 변화가 없는 가구 29.48% 순이었다. 빈곤층과 중산층과 달리 상층은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한 가구(40.17%)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감소한 가구(36.77%), 변화가 없는 가구(26.06%) 순이었다.

[표 6] 사교육비 비중 변화 분포

(단위: %)

	3차년도		빈곤층		중산층		상층		계	
	사교육비 없음	사교육비 있음								
사교육비 비중 변화 없음	사교육비 없음		36.95	11.10	29.48	59.69	23.06	29.21	25.55	100
	사교육비 있음			-		-		-		-
사교육비 비중 증가	사교육비 없음		32.13	11.52	34.94	62.33	40.17	26.15	37.73	100
	사교육비 있음			5.33		54.10		40.57		100
사교육비 비중 감소	사교육비 없음		31.82	-	35.58	-	36.77	-	36.71	-
	사교육비 있음			7.09		58.19		34.72		100
	계		100	-	100	-	100	-	100	-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후¹⁵⁾, 3차년도와 비교하여 4차년도에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한 가구와 감소한 가구를 구분하여 가구의 개별 소비지출 항목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사교육비가 증가한 가구들의 총 생활비 증가 금액은 대략 16만원이었으

¹⁵⁾ 총생활비 변화금액과 사교육비 변화 금액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이다.

며, 빈곤층의 증가 금액이 32.41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교육을 이용하는 가구 전체에서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20%p 증가하였으며, 증가 금액은 22.46만원이었다. 빈곤층의 경우 증가금액은 15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5.93%p로 증가하여, 빈곤층의 사교육비지 증가 금액은 가장 적지만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폭은 중산층과 상층이 비해 다소 높았다.

사교육비가 증가한 가구에서 다른 지출항목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3차년도 대비 4차년도 식료품비를 줄인 것을 것으로 나타났는데(빈곤층 4.64%p, 중산층 0.82%p, 상층 0.13%), 그 정도는 빈곤층에 가장 두드러졌다. 주거비는 빈곤층과 상층 가구에서만 줄었는데 빈곤층이 1.04%p로 상층보다 더 많이 줄었다. 광열수도비의 경우, 가구가사용품비의 경우 또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줄었으나, 다른 소득 계층에 비해서 빈곤층의 감소%p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의류신발비는 상층만 지출을 0.12%p 감소하였으며, 보건의료비의 경우는 중산층만이 0.19%p 감소하였다. 공교육비는 전 계층에서 감소하였는데, 빈곤층의 감소폭(0.79%p)이 가장 컸다. 반면 교양오락비는 전 계층에서 증가하였으며, 빈곤층의 증가율이 0.59%p로 가장 컸다. 교통통신비는 중산층(-1.35%p)과 상층(-1.18%p)의 지출 비중이 많이 감소한 반면 빈곤층은 0.82%p 감소하였다.

다음으로 사교육비 감소가구의 총 생활비 감소 금액은 평균 21만원 정도로 상층이 48만원을 감소 금액이 가장 컸다. 그렇지만 총생활비는 빈곤층과 중산층에서는 증가한 반면, 상층만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¹⁶⁾ 그리고 평균 사교육비 감소 금액은 20만원 가량으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5.06%p 감소하였다. 빈곤층이 사교육비 감소 비중이 6.77%p로 가장 컸으며 대략 12만원이 감소하였다. 반면 중산층과 상층의 경우 각각 5.16%, 4.55%p 감소하였으며, 감소 금액은 각각 15.66만원과 27.88만원이었다. 사교육비 감소 가구에서 증가한 소비지출 항목은 빈곤가구의 경우 식료품비를 전년도 대비 0.39%p 증가하였으며, 주거비 0.17%p, 광열수도비 0.14%p, 가구가사용품비 0.99%p, 그리고 공교육비가 1.20%p, 기타소비지출 1.19%p 증가하였다. 중산층의 경우, 모든 소비지출 항목의 지출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상층의 경우 교양오락비를 제외한 모든

¹⁶⁾ 여기에서 빈곤층과 중산층의 평균 총생활비 금액은 감소한 반면 평균 변화율은 다소 증가한 결과는 사교육비가 감소한 가구 중 3,4차년도 사이에 총생활비 변화율이 큰 일부사례의 영향으로 평균 총생활비는 감소하였지만 변화율은 증가한 결과를 보인다.

소비항목이 지출 비중이 증가하여 빈곤층에 비해서 중산층과 상층의 경우 사교육비의 감소가 다양한 생활비지출 항목의 증가로 이어졌다.

[표 7] 사교육비 증가 혹은 감소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

항 목		사교육비 증가 가구				사교육비 감소 가구			
		전 체	빈곤층	중산층	상 층	전 체	빈곤층	중산층	상 층
총생활비 변화	금액변화(만원)	15.68	32.41	18.30	7.73	-21.41	-10.53	-6.52	-47.59
	변화율(%)	8.47	24.53	9.49	3.51	-0.02	0.01	0.01	-0.06
사교육비 변화	금액변화(만원)	22.46	15.09	17.80	29.54	-19.90	-11.81	-15.66	-27.88
	비중변화(%p)	5.20	5.93	5.23	5.02	-5.06	-6.77	-5.16	-4.55
개별 소비 항목 비중 변화 (%p)	식료품비	-0.84	-4.64	-0.82	-0.13	0.39	1.61	0.14	0.16
	주거비	-0.14	-1.04	0.02	-0.26	0.17	-0.20	0.32	0.03
	광열수도비	-0.29	-1.43	-0.29	-0.07	0.14	0.24	0.06	0.25
	가구가사용품비	-0.92	-1.59	-0.70	-1.18	0.99	1.72	1.60	0.76
	의류신발비	0.03	0.99	0.02	-0.12	0.16	0.00	0.12	0.23
	보건의료비	0.02	0.10	-0.19	0.36	0.05	-0.70	0.19	0.00
	공교육비	-0.37	-0.79	-0.32	-0.37	1.20	0.91	1.33	1.06
	교양오락비	0.10	0.59	0.03	0.12	0.02	-0.20	0.11	-0.04
	교통통신비	-1.26	-0.82	-1.35	-1.18	0.76	-0.17	0.09	1.11
기타소비지출	0.44	2.11	0.01	0.83	1.19	2.35	0.94	1.34	

[표 8]은 사교육비를 증가 혹은 감소하였을 경우 소득계층별 생활비 항목의 변화를 보여준다.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할 때 모든 소득계층에서 식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공교육비, 교통통신비 비중이 공통적으로 감소한 반면, 사교육비 비중이 감소할 때 식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공교육비, 기타소비지출 등의 소비항목 지출 비중은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여기에서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공교육비는 사교육비 증가할 때 감소, 감소할 때 증가하는 항목으로 사교육비 지출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또는 탄력적으로) 조정되는 소비항목이었다. 이는 식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공교육비는 소비탄력성이 높아 사교육비 지출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짚어볼 점은 사교육비 변화에 조정되는 소비항목을 보면 필수재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과 가구의 소비 안녕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교육비 비중 변화에 따른 다른 소비항목의 조정은 소득계층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중산층과 상층은 사교육비 비중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비를 조정하는 반면, 빈곤층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소비항목이 제한적이다. 이는 중산층 이상 계층에 비해 빈곤층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다른 소비지출에 보다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가구의 소비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8] 사교육비 증가/감소시 감소/증가하는 생활비 항목

구 분	사교육비 증가 시 감소하는 생활비항목	사교육비 감소 시 증가하는 생활비 항목
빈곤층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공교육비, 교통통신비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공교육비, 기타소비지출
중산층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사가구용품비, 공교육비, 교통통신비, 보건의료비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공교육비, 기타소비지출, 주거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상층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공교육비, 교통통신비, 의류신발비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공교육비, 기타소비지출, 주거비, 의류신발비, 교통통신비
공통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공교육비	

3) 사교육비 지출 비중 변화 영향 요인

가구의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에 대한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 변화에는 주요하게 가구주 학력, 주택소유형태, 거주 지역, 가구 내 초중고 아동수와 변화, t년도의 사교육비 지출수준, 가구의 경제적 여건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비 지출수준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가구 특성적 요인의 영향을 보면, 일반적인 예상처럼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가구 내 초중고 아동 수와 그 변화에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구 내 초중고 아동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그 아동 수가 증가할 때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선행 연구에서 학급당 아동 수는 사교육비

지출 수준에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드러났었지만, 선행연구들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가구 내 초중고 아동의 수의 변화 또한 사교육비 지출과 중요한 관련이 있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3차년도에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할수록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지출 비중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는데, 이는 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하는 가구, 즉 사교육비 지출 욕구가 적거나 또는 사교육비를 지출에 제약에 많은 가구(저소득 가구 등)는 사교육비 지출 비중을 증가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가구의 경제적 여건은 사교육비 비중 변화에 관련이 깊은데, 가구의 소득이 증가할 때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의 예산제약이 클수록 사교육 지출비중은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가구의 예산제약, 즉 총생활비에서 사교육비를 제외한 다른 소비항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때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감소하는 것으로, 이는 사교육비 외 가구의 다른 소비항목에 대한 욕구가 더 크게 증가할 때 사교육비 지출비중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빈곤층에 비해 중산층과 상층가구에서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상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비중 변화에 대한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상층 가구와 중산층 가구가 전체적으로 비슷한 결과를 보이면서도, 중산층은 가구의 여건(가구주 학력, 주택소유 형태, 부모의 경제활동상태)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비중의 변화가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산층과 상층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 증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가구의 학급당 아동 수와 아동 수의 증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빈곤층은 가구의 학급당 아동 수나 변화에 영향을 받긴 하지만 중산층과 상층에 비해 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층의 경우 가구 내 사교육 욕구가 클지라도(아동 수가 많고 증가하더라도)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킬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는 소득변화의 영향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빈곤층의 경우 소득변화가 클 때, 즉 소득이 증가할 때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빈곤층은 가구 내 욕구보다는 소득에 변화에 사교육비 지출이 주되게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9] 사교육비 지출 비중 변화 다중 회귀분석 결과

변 수	전 체	빈곤층	중산층	상 층
가구주연령	-.011	.007	.000	-.054
가구주학력_고졸 (기준: 고졸미만)	.922**	.011	.971**	1.307
가구주학력_대입이상 (기준: 고졸미만)	1.575***	1.152	1.588***	1.880
부모경제활동_맞벌이 (기준: 비맞벌이)	.050	-.939	.543*	-.416
주택_전세 (기준: 자가)	-.572*	-.921	-.457	-.495
주택_월세및기타 (기준: 자가)	-1.011***	-2.763***	-.624*	-1.165
거주지역_서울 (기준: 서울 외)	.688**	1.912*	.508	.880
성인가구원수	-.130	.278	-.105	-.112
성인가구원수 변화	-.002	-1.017	.497	-.368
미취학아동수	1.318***	1.166	1.508***	.881
미취학아동수 변화	.996**	-.313	.734	1.692*
초등학생수	2.557***	1.071	2.611***	2.866***
초등학생수 변화	3.327***	2.745*	2.891***	4.323***
중학생수	1.725***	.123	1.193***	3.066***
중학생수 변화	3.610***	2.305	3.537***	3.903***
고등학생수	1.024***	-.880	1.213***	.294
고등학생수 변화	2.839***	3.157*	2.833***	2.221**
대학생수	-.503	-2.399*	-.701*	.298
대학생수 변화	.102	-.615	-.288	.547
사교육 지출금액(로그)	-1.824***	-2.843***	-1.971***	-1.523***
소득 변화금액(표준화)	.426***	3.260***	-.027	.390**
예산제약 변화금액(표준화)	-2.350***	-2.271**	-2.373***	-2.313***
소득계층_중산층 (기준: 빈곤층)	1.268***	-	-	-
소득계층_상층 (기준: 빈곤층)	2.112***	-	-	-
상수	.192	2.428	.930	2.849
F	34.07***	5.75***	25.13***	10.16***
R ²	.368	.3263	.287	.288

*** p<0.01, ** p<0.05, * p<0.1

소득이 증가할 때 빈곤층 가구와 상층 가구에서는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는데, 중산층 가구는 그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이는 중산층 가구

는 빈곤층이나 상층 가구와 비교하여 소득보다는 가구의 다른 여건, 특히 가구주 학력, 주택소유형태, 거주 지역, 부모의 경제활동상태 등의 영향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가구주의 학력 수준의 영향은 전체가구와 중산층 가구에서 가구주의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증가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던 반면, 상층과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비중 증가에 가구주의 학력수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가 사교육비 지출비중에 미치는 영향은 중상층의 경우에만 한정해서 맞벌이일 경우 지출비중이 증가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전체계층과 빈곤층에서 서울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것보다 서울지역에 거주할 경우가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모든 계층에서 전년도의 사교육비 지출금액 자체가 클수록 지출비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4) 소득계층별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변화에 따른

소비항목별 지출 변화 영향 요인

[표 10]은 전체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 변화가 각 소비항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SUR 분석 결과이다. 사교육비 지출 변화가 다른 소비지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사교육비 지출 비중 증가는 모든 소비항목의 지출비중과 부적(negative) 관계를 보인다. 그렇지만 그 영향은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공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 증가는 소비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다른 소비항목을 줄이는 효과가 가지는데, 특히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공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를 유의하게 줄인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즉, 전체 가구에서 사교육비 지출 비중의 증가는 가구의 거의 대부분의 소비항목의 지출을 제약하여 가구의 소비의 균형과 안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특히 선택재 성격이 강한 사교육비 비중의 증가로 인해 필수재 성격이 강한 광열수도비,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결과는 사교육비 증가로 인한 소비 안정성 훼손이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홍우형·남준우, 2009; 김경휘, 2008).¹⁷⁾

[표 10] 소비지출 비목별 지출 비중 변화 SUR 분석(전체 가구)

변 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 수도비	가구 가사 용품비	의류 신발비	보건 의료비	공교육비	교양 오락비	교통 통신비	기타 소비
사교육비변화	-.022	-.031*	-.050***	-.199***	-.026***	-.030	-.097***	-.023	-.084**	-.155***
가구주연령	.017	-.001	.007	-.024*	-.006	.005	.035***	-.004	.029	-.031
가구주학력_고졸 (기준: 고졸미만)	-.051	-.351	.187	.105	.083	-.269	.877**	.198	-.756	-.205
가구주학력_대입이상 (기준: 고졸미만)	-.217	-.491	.077	-.378	.124	-.373	.936**	.502	.827	-.026
부모경제활동_맞벌이 (기준: 비맞벌이)	-.146	.352	-.104	-.258	-.106	.729***	.264	.418**	-.524	-.023
주택_전세 (기준: 자가)	-.320	1.157***	.118	.519**	-.165	-.322	-.241	-.593**	-.029	.005
주택_월세및기타 (기준: 자가)	.048	-.331	.038	.612**	-.053	-.434	-.721**	-.325	.504	.472
거주지역_서울 (기준: 서울 외)	.097	-.133	.181	-.282	.069	-.357	-.223	-.257	-.105	.377
성인가구원수	.342*	.068	-.095	.014	.112	-.208	-.116	-.313**	-.056	-.377
성인가구원수 변화	2.315***	-1.599***	-.294	.378	.432*	.642	-1.755**	.653	-1.133	-1.021
미취학아동수	-.168	-.019	.004	.767***	.031	.119	.971***	-.034	-.885**	-.021
미취학아동수 변화	.841*	-.455	-.002	2.989***	-.367*	-.362	-.172	-.454	.244	-.204
초등학생수	.032	-.290	.021	.210	.049	.180	.492*	-.149	.127	.427
초등학생수 변화	1.523***	-1.319***	-.005	.411	-.556**	-.551	-.755	-.597*	.722	.669
중학생수	-.052	-.378	-.005	.412	.052	-.114	1.090***	-.099	-.652	.589
중학생수 변화	.797	-1.130**	-.031	.726	-.122	-1.296**	.155	-.622*	-.191	.522
고등학생수	-.711	-.331	-.162	.046	-.244	-.083	.270	.013	.272	.860
고등학생수 변화	.169	-.775*	-.310**	-.018	-.001*	-.495	2.879***	-.958***	-.476	-1.144
대학생 수	-.247	-.320	-.095	.029	.199	.057	-.299	-.047	-.917**	.842
대학생수 변화	-.631	-.821**	-.355***	-.596*	-.100	-.454	9.981***	-.430**	-2.374 ***	-4.471***
사교육비지출금액 (로그)	.032	.027	.010	-.095	-.004	-.126	-.063	-.028	.122	-.107
소득 변화금액 (표준화)	.009	-.096	.007	.026	-.165***	.152	-.084	-.147	-.410**	.461**
예산제약 변화금액(표준화)	1.588***	.398**	-1.278***	-.014	-.197***	.631***	-.154	.135	3.389***	.651**
소득계층_중산층 (기준: 빈곤층)	-1.417***	.273	.555***	.114	-.422**	.297	.750	-.817**	.620	.042
소득계층_상층 (기준: 빈곤층)	-1.473***	.214	.581***	.142	-.705***	.307	.863	-1.121***	1.190	.998
상수	.934	.013	-.778**	.930	.570	.418	-3.617***	1.748**	-1.665	2.117
R ²	.077	.033	.243	.114	.027	.022	.382	.026	.100	.058
χ ²	187.2***	76.0***	723.0***	291.9***	63.5***	50.6*	1396.7***	60.9***	249.9***	138.6***

*** p<0.01, ** p<0.05, * p<0.1

17) 사교육비 비중 변화로 지출비중이 감소하는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공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은 상대적으로 소득탄력성이 높은 선택재나 준선택재로 분류될 수 있다(김경휘, 2008).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비항목의 지출 감소가 가구의 소비균형과 소비 안정성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을 상기할 필

사교육비 지출 비중 변화 및 가구의 다른 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의류신발비, 공교육비, 교양오락비 등이 소득계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된다. 중상층과 상층이 빈곤층에 비해서 식료품비 지출을 감소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광열수도비 지출의 경우 빈곤층에 비해서 중상층과 상층의 지출을 증가시킬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반면 교양오락비와 의류신발비의 지출변화의 경우 빈곤층에 비해서 감소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본 분석에서 투입한 변수는 각 소비항목의 지출 비중 변화(%p)이며, 빈곤층의 절대적인 지출 수준은 다른 소득계층이 비해 적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표 11]은 소득계층별 사교육 지출 비중 변화가 다른 소비 비목이 차지하는 비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결과 중 사교육비 지출 비중의 영향만을 보여준다. 소득계층별 SUR 분석에는 전체 가구 대상 분석에 된 투입된 변수 중 소득계층을 제외한 모든 변수를 투입하였으며, 자세한 결과는 [부표 1, 2, 3]으로 제시하였다.

사교육비 지출 변화가 다른 소비 항목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를 보면,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공교육비, 기타소비 등이 소득계층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상층은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공교육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줄어든 반면, 중상층은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공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지출 비중이 감소하였다.¹⁸⁾ 분석결과,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중상층이 사실상 가구

요가 있다. 사교육비 지출비중이 증가할 때 공교육비 지출 비중이 감소하는 결과는 독자에 따라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공교육비는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소득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준선택재 또는 선택재로서(김경휘, 2008; 김정현·최현자, 2002), 소득변화에 민감하게 조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공교육비는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 변화에 탄력적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또한 2007년과 2008년 사이 공교육가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2%p 증가한 반면, 사교육비는 1.1%p 증가하여, 즉 공교육비 증가에 비해 사교육비 증가가 더 커서(김양분·양수경, 2011), 사교육비 지출 비중 증가할 때 공교육비가 감소하는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¹⁸⁾ 사교육비 지출 비중 증가로 인해 중상층과 상층은 공교육비 지출 비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감소하는 반면, 빈곤층은 그렇지 않는 결과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계층에 따라 공교육비의 소득탄력성에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높다. 근로빈곤층과 비빈곤층의 소비항목별 소득탄력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김경휘, 2008), 공교육비 소득탄력성은 근로빈곤층 0.596, 비빈곤층 1.084로 빈곤층에게 공교육비는 필수재적 성격이 강해 소득변화에 민감하게 조정될 여지가 적다. 반면, 중상층과 상층의 공교육비 소득탄력성이 높아 소득변화에 따라 공교육비가 탄력적으로 조정될 여지는 크다. 즉, 중상층과 상층은 사교육비가 증가할 때 공교육비를 위한 소비 자원이 감소하기 때문에 공교육비 지출 비중이 감소한다고 볼 수 있다.

내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을 늘어나면서 지출을 감소시키는 소비항목이 가장 많은 계층으로 나타났으며, 상층과 빈곤층의 경우는 3~4개 소비 항목의 지출비중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⁹⁾ 하지만 광열수도비의 지출비중 감소율이 빈곤층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유의해야 할 점은 본 분석에서 투입한 변수는 각 소비항목의 지출 비중 변화(%p)이며, 빈곤층의 절대적인 지출 수준은 다른 소득계층이 비해 적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표 11]의 결과는 소득계층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변화에 따라 탄력성을 보이는 소비 항목은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며, 사교육비 지출 비중 증가에 따른 소비 항목의 제약을 가장 많이 경험하는 소득 계층은 중산층이었으며, 굉장히 제한적인 예산범위 안에서 소비하는 빈곤층의 경우는 광열수도비와 가구가사용품비 등과 같이 일차적으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항목들에서 지출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소비지출 항목별 지출 비중 변화 SUR 분석(소득계층별)

	변 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보건의료비	공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
전체 ¹⁾	사교육비 변화	-0.22	-0.31*	-0.050***	-0.199***	-0.026***	-0.030	-0.097***	-0.023	(-0.084**)	-0.155***
빈곤층	사교육비 변화	-0.077	-0.072	-0.136***	-0.174***	0.058***	-0.053	-0.014	-0.024	-0.107*	-0.104
중산층	사교육비 변화	-0.026	-0.033	-0.045***	-0.196***	-0.028**	-0.017	-0.093***	-0.008	-0.096**	-0.205***
상층	사교육비 변화	0.023	(-0.025)	-0.036***	-0.218***	(-0.046***)	-0.044	-0.088**	-0.051	-0.063	-0.097

1) [표 10]의 결과, *** p<0.01, ** p<0.05, * p<0.1, () 연구모형의 적합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¹⁹⁾ 빈곤층의 경우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할 때 의류신발비의 비중도 함께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 다른 소득계층에서의 결과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한 가지 가능한 해석은 사교육이 증가할 때, 사교육을 받는 자녀의 의류나 신발 등에서 상징적 소비가 과도하게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분석 자료에서 의류신발비가 구체적으로 가구 내에서 누구를 위해 지출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이 또한 명확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다른 요인에 의해 의류신발비의 비중이 증가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3차와 4차의 자료를 연결해서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변화가 다른 소비항목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의 66.2%가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차년도 자료). 그리고 아동이 있는 가구는 월평균 27만원을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으며, 사교육비는 전체 소비지출 중 7.1%를 차지한다. 사교육비 지출 수준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증가하여, 상층 가구는 빈곤층에 비해 3.5배, 중산층에 비해 2.1배 많은 금액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다. 사교육비가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빈곤층 6.2%, 중산층 6.8%, 상층 7.9%로 소득이 높을수록 증가하지만, 가구의 소득수준에 감안할 때 빈곤층의 사교육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청 자료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소득에 따른 아동에 대한 투자의 격차를 보여준다. 학업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을 더 받는 한국의 현실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수준이 높은 결과는 소득격차가 아동의 학업성취 격차를 강화할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그리고 빈곤층 가구의 아동은 소득수준 대비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의 학업성취 격차를 줄이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소비 빈곤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가구의 소비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7.1%)과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5.9%)을 비교하면(3차년도 기준), 아동이 있는 가구는 공교육에 비해 사교육에 대한 지출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아동에 대한 교육에 있어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사교육비 지출의 증가세는 완화되었다 할지라도 사교육 참여자의 사교육비의 지출 수준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한다면, 사교육비 증가로 가구의 다른 소비를 위축시킬 위험은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소득계층별로 보면 상층과 중산층은 공교육비 지출 비중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높은 반면, 빈곤층은 공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난다. 이는 빈곤층이 다른 소비지출

을 줄여가면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빈곤층 가구의 아동은 공교육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빈곤층 아동의 경우 공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공교육의 질은 결국 아동의 현재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미래 삶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빈곤층의 교육 소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사교육 부담 완화가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경쟁 중심으로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공교육의 내용과 질의 향상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셋째,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한 가구의 평균적인 사교육비 비중 증가폭은 5.1%p이고 증가금액은 21만 원 정도이다.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비중의 변화를 보면, 빈곤층의 증가금액(14만원)이 중산층(17만원)과 상층(28만원)에 비해 절대적인 금액은 적지만,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변화는 빈곤층 6.1%p, 중산층 5.1%p, 상층 4.7%p로 빈곤층 가구에서 사교육비 비중 증가폭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즉,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절대적인 금액의 증가폭은 크지만,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소비지출 대비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폭이 높다. 사교육비 증가의 절대적인 액수는 가구의 지불 능력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이지만, 소비지출 중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빈곤층에 더 증가하는 것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다른 소비지출을 줄여야하는 부담은 빈곤층에 좀 더 크다는 것으로 시사한다. 결국 빈곤층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가구의 균형적인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지만 사교육비 비중이 감소한 경우를 보면, 빈곤층의 절대적인 감소금액은 적지만(빈곤층 13만원, 중산층 17만원, 상층 29만원) 감소폭은 다른 소득계층이 비해 크다(빈곤층 7.5%p, 중산층 5.7%p, 상층 5.0%p). 이는 한편으로는 빈곤층의 사교육비는 여러 요인에 의해 변동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며, 다른 한편에서는 사교육비 감소시켜 다른 소비비목에서 소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 또는 감소로 인해 조정되는 소비 비목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중산층과 상층은 사교육비 비중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비를 조정하는 반면, 빈곤층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소비 항목에 제약이 있었다. 이는 빈곤층은 사교육비 지출로 인한 다른 소비지출에 제약이 크며, 근본적인 예산 제약으로 인해 사교육비가 증가할 때(또는 감소할 때) 다른 소비지출은 탄력적으로 조정할 여지가 적음을 보여준다. 이는 빈곤층의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수도비 등 필수

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표 5 참조). 결국 빈곤층의 사교육비 지출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비를 위축시켜 실질적인 경제적 안녕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째,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 변화는 가구 구성적 요인, 특히 학급당 아동의 수 변화에 민감하였다. 그러지만 빈곤층 가구의 학급당 아동 수와 그 변화의 영향을 미약하였다. 이는 빈곤층의 경우 가구 내 사교육 욕구가 클지라도(아동 수가 많고 증가하더라도) 사교육비 지출을 증가시킬 수 없는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는 소득변화의 영향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빈곤층의 경우 소득변화가 클 때, 즉 소득이 증가할 때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데 이에 비추어보면 빈곤층은 가구 내 욕구보다는 소득에 변화에 사교육비 지출이 주되게 결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선행연구에서 주요 영향요인으로 밝혀진 가구주의 학력수준은 중산층의 경우에만 사교육비 지출변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다. 이는 선행연구는 사교육비 지출수준에 초점을 둔 반면, 본 연구는 사교육비 비중 변화에 초점을 두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사교육비 지출수준은 부모의 학력수준에 강한 영향을 받지만,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변화는 아동 수의 변화와 더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상층 가구와 빈곤층 가구는 소득이 증가할 때 사교육비 비중이 증가하는 결과를 보인 반면, 중산층 가구에서는 통계적 유의도가 없다. 이는 중산층 가구는 빈곤층이나 상층 가구와 비교하여 소득보다는 가구의 다른 여건, 특히 가구주 학력, 주택 소유형태, 거주 지역, 부모의 경제활동상태 등의 영향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어쩌면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가구 소비지출 변화가 심각한 집단은 중산층 가구임을 강하게 시사한다. 즉,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중산층은 사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아 사교육 열풍이 불 경우 소득변화에 관계없이 사교육 지출은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다른 소비를 축소시켜 소비의 불안정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비해 빈곤층은 다른 소득계층과 마찬가지로 초중고 학생 수의 변화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비중이 증가하지만, 빈곤층은 사교육에 대한 직접적 요인 외의 요인에 의한 사교육비의 탄력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또는 불가능하다. 즉 사교육의 열풍이 분다할지라도 아동의 인적자본 개발을 위한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빈곤층 아동은 교육에서 있어 여전히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여섯째, 사교육비 지출 변화가 다른 소비지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사교육비 지출 비중 증가는 모든 소비항목의 지출비중과 부적(negative) 관계를 보이는데, 특히 그 영향은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공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 소비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비중 증가는 소비할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인 상황에서 다른 소비항목을 줄이는 효과가 가지는데, 특히 주거비,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 의류신발비, 공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를 유의하게 줄인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소득계층별 사교육비의 비중 변화가 다른 소비 비목 비중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모든 계층에서 사교육비 비중이 증갈 때, 광열수도비, 가구가사용품비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줄이는 결과를 보였다. 중산층은 의류신발비, 공교육비, 교통통신비, 기타소비지출을, 빈곤층은 교통통신비를 더 줄이는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계층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변화에 따라 탄력성을 보이는 소비 항목은 차이가 있으며, 빈곤층은 소비지출 항목 조정에 제한이 많은 반면, 중산층의 소비 항목 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중산층의 소비조정이 활발하다는 것은 빈곤층에 비해 사교육비 지출 변화로 인한 소비 조정의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교육비 지출 변화로 인해 다른 소비의 안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근본적으로 높다는 것을 시사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변화와 다른 소비 항목의 변화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인한 가구의 소비 안정성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사교육 자체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자체를 평가한 연구는 아니지만, 분석 결과 모든 소득계층에서 사교육에 대한 지출 수준이 절대 낮지 않았으며 소득계층에 따라 지출 수준의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열풍이 식지 않고 계속되는 현실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는 가구의 다른 소비항목의 지출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 이는 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절대적으로 늘어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겠으나 최근의 경기 침체와 높은 물가상승, 소득의 불안정성과 양극화 현실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는 가구의 소비 안정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사교육에 크게 의존하는 현재의 교육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를 위해서는 경쟁 중심으로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공교육의 내용과 질을 향상하여 평등한 교육기회와 인적자본 개발의 기회를 전 소득계층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득 격차가 바로 교육의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와 인적자본 투자에 제약이 많은 빈곤층에서 장기적으로 빈곤이 대물림되는 문제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안 일 것이다.

본 연구는 동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과 가구의 소비지출 변화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교육비 지출 증가의 부정적인 영향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사교육비 지출 증가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의 변화 양상만을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로 인한 가구 내의 소비지출의 변화가 가구의 실질적인 소비 안정성의 변화를 보여주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소득계층에 주목하여 집단을 빈곤층, 중산층, 상층으로 구분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소득분위별 사교육비 지출과 가구의 소비지출의 변화와 경제적 안녕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강인원·전성일, 2003. “학벌주의가 학부모들의 인식수준과 사교육 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4(1), 141-158.
- 강지연, 2003. 『학부모의 교육의식과 자녀 조기유학 선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자, 2007.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교육비 지출액과 지출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111-120.
- 김경휘, 2008. “근로빈곤가구의 소비특성과 소비패턴 결정요인”. 『사회보장연구』 24(3), 1-28.
- 김부태, 1997. 『한국학력사회론』 내일을 여는 책.
- 김성식·김양분·강상진·김현철·신종호·박성호·민병철, 2007. 『한국교육중단연구 2005: 조사개요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 김양분·양수경, 2011. 『사교육비 추이와 규모 예측』 한국교육개발원.
- 김인희, 2010. “교육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정책의 과제”. 『한국사회정책』 17(1), 129-175.
- 김정원·이은미·하봉운·이광현, 2008. 『교육복지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현·최현자, 2002. “소득탄력성을 통해 본 도시가계의 소비지출양식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3(4), 269-291.
- 김지경, 2004. “미취학 자녀의 사교육 이용여부 및 비용의 결정요인”. 『소비자학연구』 15(3), 67-86.
- 김현진, 2004. “사교육비 지출 결정 변인 구조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22(1), 27-45.
- 김홍주·한여경·김현철, 1999. “한국 학생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 규모와 변동추세”. 『교육학 연구』 37(4), 307-328.
- 류정순·이순형, 1998. “계층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의 시계열 분석”. 『한국사회정책』 5(10), 223-258.
- 박미희·여정성, 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 심재희·이계열, 2005. “한국의 지역별 교육비 소득 추계”. 『산업경제연구』 18(3), 1103-1122
- 양정호, 2005.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노동패널조사의 위계적 선행모형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5(2), 121-145.
- 오만숙·김진희, 2011.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통계 분석”. 『응용통계연구』 24(1), 193-206.
- 유경원, 2010. “교육비 부담이 가계 저축 및 소비행태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21(4), 135-160.

- 윤성인, 1997.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과외학습비 지출에 따른 재정문제』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철경, 1990. “사교육비와 교육의 불평등”. 『한국교육연구소 심포지움 자료집』 2, 77-100.
- 이경선·김주후, 2010. “유아의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가구특성별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7(1), 21-38.
- 이성립, 2002.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40(7), 211-227.
- 이성립, 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 이성립, 2006. “도시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출전략”. 『소비자학연구』 17(2), 115-132.
- 이은우, 2004. “사교육비 지출행위에 대한 경제분석”. 『경제연구』 22(2), 1-31.
- 정영숙, 1999. “사교육비 지출이 소비패턴의 내재적 구조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20(4), 61-73.
- 조호정·김동열 2012.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 구조 분석: 40대 중산층의 교육비 부담 크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12-31(통권 제502호), 1-13.
- 통계청, 2008.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 통계청, 2012. 『2011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 홍우현·남준우, 2009. “사교육비 앵겔커브 및 소득탄력성 추정” 『한국경제연구』 25, 45-68.

- Gloman, G. & Ravikumar, G., 1992. Public versus private investment in human capital: Endogenous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0(4), 818-834.
- Moon, H.R. & B. Perron, 2004. Efficient estimation of SUR cointegration regression model and testing for purchasing power parity, *Econometric Reviews*, 23, 293-323.
- Moon, H.R & B. Perron, 2006.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 <http://mapageweb.umontreal.ca/perrob/palgrave.pdf>
- Srivastava, V. K. & D. E. A. Giles, 1987.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quations models*, New York: Marcel Dekker Inc.
- Zellner A., 1962. An efficient method of estimating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quations and tests of aggregation bia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57, 500-509.

The difference of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expenditure on the change of consumption structure of households depending on income bracket

Baek, Hakyoung* · Ahn, Seo Ye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change of consumption structure of households due to spending on private tutoring, then analyse the difference of change depending on income bracket.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the proportion of private tutoring spending of poor households is relatively higher than high or middle income households although the amount is smaller than them. The consumption items adjusted by the change of private tutoring spending are different depending on income level, and adjustment possibility of them of poor households is very lower than other classes. These show their risk of insufficient consumption of food, clothing, and shelter is high. The burden of private tutoring spending of the poor increase the economic insecurity, therefore various supportive approaches such as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public education, economic support the poor suffering from the burden of private tutoring spending are necessary to prevent the latent problems of the poor and their children.

Key Words: spending of private tutoring, social economic state, the poor, consumption adjustment

◆ 2012.05.02. 접수 / 2012.07.24. 1차 수정 / 2012.08.10. 게재 확정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hywhite@parna.com)

** Doctoral Candidat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doga2@hanmail.net)

[부표 1] 소비지출 비목별 지출 비중 변화 SUR 분석(빈곤층)

변 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 수도비	가구 가사 용품비	의류 신발비	보건 의료비	공교육비	교양 오락비	교통 통신비	기타 소비
사교육비변화	-.077	-.072	-.136***	-.174***	.058***	-.053	-.014	-.024	-.107*	-.104
가구주연령	.127***	.015	.017	-.071***	-.030**	.054	.007	-.027	.051	.040
가구주학력_고졸 (기준: 고졸미만)	-1.319	-1.285	.516	-1.006	-.124	.972	-.693	.605	2.241**	.470
가구주학력_대입이상 (기준: 고졸미만)	-.318	-1.305	.020	-.870	.243	2.440*	-2.895**	1.535**	.202	3.898**
부모경제활동_맞벌이 (기준 : 비맞벌이)	1.899	-1.030	-.424	-.367	.123	-.251	.663	.647	-1.242	-.953
주택_전세 (기준: 자가)	-1.476	2.642***	-.737	1.317*	.205	-.671	1.436	-1.139**	-1.285	1.237
주택_월세및기타 (기준: 자가)	.586	.604	-1.155***	1.017	.385	2.301**	.241	-.236	-.623	1.833
거주지역_서울 (기준: 서울 외)	.723	-1.889**	.478	1.224	.129	-1.019	.206	-.374	.130	.511
성인가구원수	.251	1.422***	.392	-.284	-.282	-.367	.370	-.876**	.017	1.334
성인가구원수 변화	1.575	-1.849*	.061	-1.520*	-.177	1.337	-.707	.714	2.832**	-2.943*
미취학아동수	1.089	-.390	.285	1.094*	-.069	1.555	1.566*	-.662	-.599	-2.295**
미취학아동수 변화	8.445***	-3.055**	-0.247	3.078**	-.411	1.419	1.321	-.281	-1.076	-8.621***
초등학생수	1.431	-.586	.070	.277	.206	.085	.514	-.303	-.038	-1.270
초등학생수 변화	5.166***	-3.313***	-.328	.031	-.796	-3.659**	-.152	.140	.810	-2.514
중학생수	-.787	.674	-.236	-.130	.793**	2.720**	1.065	-.148	.271	-1.865
중학생수 변화	1.765	-3.198**	-.274	-.476	.575	-5.068***	2.583	-.067	1.266	-.473
고등학생 수	1.817	-1.670*	.305	-.488	-.439	-.579	2.409**	-.409	-.287	-2.333*
고등학생수 변화	2.041	-2.282*	.343	-.394	.001	-9.595***	8.569***	-.206	2.113	-4.332**
대학생수	.433	-1.162	1.070**	.222	.261	.181	-1.614	1.147*	1.467	-2.745*
대학생수 변화	-1.995	.040	-.816	-.736	-.203	-5.025***	17.903***	.101	2.335	-10.578***
사교육비지출금액 (로그)	.417	-.030	.142	-.098	.111	-.361	.918**	-.462**	-.317	-.007
소득 변화금액 (표준화)	-.042	.866	-1.375***	-.310	.102	1.491	-.831	.307	.499	2.703**
예산제약 변화금액(표준화)	5.511***	-.698	-3.565***	1.494**	.364	1.682	.444	-.582	-.853	7.227***
상수	-6.406*	-2.642	-1.479	3.633**	1.524*	-4.325	-4.552	4.359***	-2.763	-4.287
R^2	.188	.145	.390	.185	.170	.196	.387	.182	.090	.267
χ^2	65.6***	48.1*	181.7***	64.6***	58.4***	69.2***	179.2***	63.0***	28.0	103.4***

*** p<0.001, ** p<0.05, * p<0.1

[부표 2] 소비지출 비목별 지출 비중 변화 SUR 분석(중산층)

변 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 수도비	가구 가사 용품비	의류 신발비	보건 의료비	공교육비	교양 오락비	교통 통신비	기타 소비
사교육비변화	-.026	-.033	-.045***	-.196***	-.028**	-.017	-.093***	-.008	-.096**	-.205***
가구주연령	.000	-.004	.010	-.022	-.010	.008	.012	-.003	.049	-.040
가구주학력_고졸 (기준: 고졸미만)	-.113	-.080	.263**	.211	.088	-.120	.689	.093	-.841	-.572
가구주학력_대입이상 (기준: 고졸미만)	-.667	-.322	.137	-.003	.056	-.429	.949*	.373	.829	-.424
부모경제활동_맞벌이 (기준: 비맞벌이)	-.226	.633**	-.199**	-.363	-.163	.465	.079	-.127	.039	.019
주택_전세 (기준: 자가)	-.192	1.213***	.152	.005	-.175	-.992**	.186	-.094	-.174	.344
주택_월세및기타 (기준: 자가)	-.029	-.560	.113	.426	-.039	-1.190***	-.506	.033	.402	.306
거주지역_서울 (기준: 서울 외)	.316	.104	.201*	-.291	.040	-.198	-.175	-.347	-.221	.839
성인가구원수	.309	.011	-.061	.150	.130	-.341	-.198	.018	-.661*	-.265
성인가구원수 변화	2.650***	-2.176***	.331	.358	.328	-.301	-2.153***	.581	-1.667	-.335
미취학아동수	-.328	-.107	-.013	.683**	-.035	-.165	.513	.039	-.433	.444
미취학아동수 변화	.987*	-.672	.019	2.332***	-.599**	-1.290**	1.440**	-.733**	1.117	.321
초등학생수	-.147	-.291	.004	-.059	.023	.166	.345	-.067	.017	.787
초등학생수 변화	1.772***	-1.429**	.000	-.574	-.637**	-1.230*	.790	-.706*	1.820**	1.291
중학생수	-.188	-.780**	-.068	.006	-.096	-.528	.958**	.167	.356	1.088
중학생수 변화	1.232*	-0.884	-.028	-.127	-.180	-1.627**	1.135	-.685	.820	.427
고등학생수	-1.005**	-.163	-.165	-.081	-.300*	-.540	.342	.186	.691	.875
고등학생수 변화	-.093	-.379	-.228	-.206	.099	-.675	4.237***	-1.226***	-.670	-1.478
대학생수	-.833**	-.556	-.124	-.284	.426**	.085	-.007	.188	-.759	1.121
대학생수 변화	-1.096**	-.824*	-.314**	-.722	.033	-.679	12.248***	-.891***	-2.733***	-4.555***
사교육비지출금액 (로그)	.076	.046	.003	-.068	-.021	-.184	.003	.058	.105	-.214
소득 변화금액 (표준화)	.307	-.357	-.106	.037	.084	-.358	.313	.209	-1.267***	.193
예산제약 변화금액(표준화)	2.092***	.931***	-1.777***	-.052	-.395***	1.191***	-1.038***	-.027	4.369***	.498
상수	.779	.335	-.373	1.011	.417	1.643	-1.441	-.161	-1.224	2.112
R^2	.095	.047	.289	.110	.039	.040	.438	.026	.119	.059
χ^2	146.6***	69.0***	566.7***	172.6***	56.1***	57.5***	088.9***	36.9*	189.4***	88.2***

*** p<0.001, ** p<0.05, * p<0.1

[부표 3] 소비지출 비목별 지출 비중 변화 SUR 분석(상층)

변 수	식료품비	주거비	광열 수도비	가구 가사 용품비	의류 신발비	보건 의료비	공교육비	교양 오락비	교통 통신비	기타 소비
사교육비변화	.023	-.025	-.036***	-.218***	-.046***	-.044	-.088**	-.051	-.063	-.097
가구주연령	-.012	-.042	-.014	-.002	.030	-.075*	.090**	.038	-.012	-.035
가구주학력_고졸 (기준: 고졸미만)	.021	-1.352	.012	-.114	.040	-.833	2.269**	.394	-1.536	-1.416
가구주학력_대입이상 (기준: 고졸미만)	.453	-1.171	-.033	-1.089	.202	-.732	2.189*	.568	.238	-1.471
부모경제활동_맞벌이 (기준: 비맞벌이)	-.328	-.009	-.040	.016	-.054	1.144***	.669	1.079***	-1.110	.130
주택_전세 (기준: 자가)	-.121	.763	.051	1.397***	-.154	.741	-.729	-1.337***	-.003	-.335
주택_월세및기타 (기준: 자가)	-.235	-.007	.172	.762	-.047	.328	-2.317***	-.817	.820	1.277
거주지역_서울 (기준: 서울 외)	.121	-.137	.015	-.289	-.092	-.482	-.887*	-.219	-.247	.343
성인가구원수	.177	.212	-.020	-.288	.060	.434	-.087	-.723**	1.014	-1.411**
성인가구원수 변화	.275	.745	-.226	2.110*	.938	1.273	-.974	.416	-3.013	-3.241
미취학아동수	-.321	.134	-.014	.766	.311	.092	1.605***	.134	-1.838	-.766
미취학아동수 변화	-.952	.205	.072	4.107***	.232	.926	-2.327***	-.007	-1.495	-.011
초등학생수	-.034	-.178	.031	.806*	.104	.467	.138	-.335	.475	.526
초등학생수 변화	.196	-.770	.193	2.535***	-.280	1.847*	-3.156***	-.752	-1.919	-.592
중학생수	.391	.362	.351***	1.436***	.032	.260	.642	-.597	-2.853	.008
중학생수 변화	.166	-1.119	.160	2.831***	-.387	.255	-1.823*	-.819	-2.867	.411
고등학생수	-.228	-.262	.025	.578	-.112	1.290*	-.746	-.315	-.915	1.448
고등학생수 변화	.326	-.894	-.297*	.650	-.233	1.296	.591	-1.063	-1.252	-.765
대학생수	.544	.335	-.001	.287	-.231	.638	-.546	-.732	-1.448	.723
대학생수 변화	.133	-.716	-.295***	-.511	-.274	.159	6.617***	-.042	-2.617***	-3.894***
사교육비 출금액 (로그)	-.186	-.050	-.021	-.217	.014	-.103	.056	-.047	.319	-.122
소득 변화금액 (표준화)	-.045	-.098	.015	.069	-.208	.241	-.108	-.216	-.293	.452
예산제약 변화금액(표준화)	1.140***	.154	-.779***	-.097	-.142***	.280	.454*	.214	2.966***	.497
상수	.765	2.333	.681	.646	-1.640	1.999	-6.369	-.037	.464	7.039
R^2	.095	.030	.355	.157	.046	.054	.419	.056	.130	.077
χ^2	60.3***	17.9	317.1***	107.1***	27.6	32.7 †	416.5***	34.4 †	86.2***	48.4*

*** p<0.001, ** p<0.05, * p<0.1, † p<.10